

Fri 2/2/2024 9:17 AM

신실한 섬김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 곳 바스토에서 목회자 가정으로 또 이민 1 세대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에게

조슈아&함순녀 재단의 서포트는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2024 년 여러가지로 저희 가정에게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 해 입니다.

기쁨이의 부모초청으로 저희 부부의 영주권 신청이 시작되고, 반석이는 신분유지를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좋고 교우관계도 좋게 유지하며 잘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GED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커뮤니티칼리지를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요.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영주권번호가 열려서 대학진학시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We are always grateful for your faithful prayer & support.

The support of the Joshua J & Sunnyo Buck Foundation is truly a great help to us who live here in Barstow

as a pastor's family and as immigrants. Many changes are expected for our family in 2024.

We will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through my 21years old U.S. citizen daughter's invitation.

My son who is not a citizen, applies for a student visa to maintain his status. So he dropped out of high school(he was a good student)

and preparing for the GED. I plan to apply for a student visa through a local community college instead of the expensive private highschool.

I pray that the door to permanent residency for my son (greencard parent's invitation F2A)will be opened before transferring to a university

so that he can get the scholarship benefits.

늘 저 목사님네는 바스토에서 얼마나 견디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바스토의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몇 안되지만 부족한 저희를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저희가 바스토에 정착하는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사는 것이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지난한 과정들은 나중에 다시 소상히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형편을 고려해 작성했던 내 형편짜리 작은집은 오피에서 떨어졌는데,

잘은 손님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만한 크기의 하나님짜리 집은 덜컥 주인이 오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와서부터 늘 기도하던,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마치 기도원처럼 쉼과 회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사택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비용이나 반석이의 학비가 추가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때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아직은 막막하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The Korean people in Barstow always look at us intending to see how much we can endure in Barstow.

To the wounded souls of Barstow, and to the few who believe in Jesus and follow us,

The best way to show that we are settling down in Barstow is to buy a house.

We prayed for a long time and God made this dream come true.

I will share the arduous process that God guided me in detail later.

The small house (I called it My reality size)we planned considering our circumstances fell out of the offer.

The house which is large enough to provide accommodations for frequent guests (I called it God's size)
was accepted.

We have been praying ever since we came here, and we have dreamed of a place where we can provide
rest and recovery like a prayer center

to those guests. God made us able to purchase the house as a house of prayer.

I'm still at a loss as to how to cover it in the future, as I have to pay for the changing status and Banseok's
tuition as additional expenses.

But I decided not to worry because it is the God's business who started from the first.

바스토 한인교회는 이곳에서 저희가 4 년을 보내는 동안

어르신들의 연로함이 더 해져, 자녀들이 있는 도시로, 양로원으로,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일선에 계셔서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운 약 10 여명의 60 대 어르신들이 바스토의 다음세대입니다. 이 분들이 결단하고 예배를 삶의 1 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라며 몇몇 분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로함이나 와병등의 이유로 곧 바스토를 떠나시게 될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인 바스토를 기억하시고 또 부족한 저희가정을 사랑하셔서

섬겨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During the four years we have been here at Barstow Korean Church, the number of seniors has decreased,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going to cities with their children, to nursing homes, or heaven.

About 10 seniors in their 60s who have difficulty attending Sunday services because they are still on the front line are the next generation of Barstow. We continue to fellowship with some of these people in the hope that they will make a decision and begin a life of faith with worship as the top priority in their lives. Care continues for the elderly who will soon leave Barstow due to old age or illness.

We lift to God the precious hearts of yours who remember Barstow, God's territory, and love and serve our families who are in need.

Thank you so much.

Respectfully, Jeongkwan & Esther K. Seo.